

배포 일시	2023. 3. 10.(금)		
담당 부서 <총괄>	주택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보도일시	2023년 3월 13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3.(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 1월 임시개소 이후 612건 상담... 정식개소로 보다 본격적인 상담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되었다.
 - * 임시개소 이후 3월 8일까지 총 374명이 방문하여 612건의 피해사례 등 상담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
 -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하였다.

-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함으로써 상담 등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센터를 찾은 전세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은 후, “앞으로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정식개소를 통해 인천시 피해임차인들의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힐 예정이다.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센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총괄>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피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정덕기 (044-201-4420)
		담당자	사무관 이혜신 (044-201-4423)
<공동>	인천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양호 (032-440-5043)
		담당자	팀 장 한지영 (032-440-4741)

